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前號에서 계속〉

발명가의 마음가짐

I. 아이디어와 발명력의 향상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 좋다고 하니까 교활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즉 벽돌의 용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내면 이것은 무엇인가의 밀받침으로 쓰이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주전자 받침, 찻잔의 받침, 도자기의 받침 등등 무한히 나열한다. 또 재떨이의 용도를 문제에 서는 무엇을 담는다는 식으로 말하면 수많은 답을 낼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는 수는 많지만, 생각하는 각도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즉 「받침대」라든가 「용기」로서 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

발명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로 각도에서 생각한다. 한 가지 각도에서만 생각하는 사람은 발명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발명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 위해 서는 수량과 동시에 그 문제를 얼마만큼의 각도에서 보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면 알 수 있다. 붉은 벽돌의 성질을 놓고 다시 생각해 보자. 무게, 길이, 거칠음, 붉은 색, 가루로 만들 수 있음 등등 벽돌의 특성을 체킹해보면 수많은 용도를 생각해낼 수 있다.

II. 분석 및 통합력의 향상

발명가는 분석력과 통합력에 뛰어나 있다. 분석이란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나누는 두뇌의 작용이다. 나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나누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큰 문제는 그대로 보고 있으면 좀처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작은 몇 개의 문제로 나눠 그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통합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분할하여 통치하라’고 말했다. 커다란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나눠서 각각 통치하며,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이다. 문제해결의 경우도 문제를 나눠 축소화됨에 따라 해결안이 쉽게 나오게 된다. 발명가는 이 테크닉에 뛰어나다.

예나 지금이나 발명가는 분석력에 뛰어나, 시대적 첨단기술발전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

그런데 분석보다도 통합이 더욱 어렵다. 분석하면 세세한 문제도 나눌 수 있으므로 그 하나하나의 해결안은 비교적 용이하게 나온다. 그러나 각각의 해결안을 하나로 정리해서 전체의 해결안으로 통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나온 아이디어를 통합, 큰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이는 합하는 과정에서는 발명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어본다. 야구단의 감독이 9명의 주전 선수 배팅 순서를 결정한다고 하자. 그때의 가능성은 몇 가지나 있을까? 무려 36만2천 8백80가지나 있다고 한다. 통합이 어려운 것은 그 때문인 것이다.

일반적인 문제해결의 경우는 문제를 분석하여 아이디어를 내기 쉽게 한다. 그 경우 대부분은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좋다. 분석이란 균원으로 소급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이디어를 내기 쉽게하는 첨경인 것이다.

원인이란 무엇인가를 세분화해가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

발명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로 여러 각도에서 생각한다.
한가지 각도에서만 생각하는 사람은
발명가가 될 수 없다.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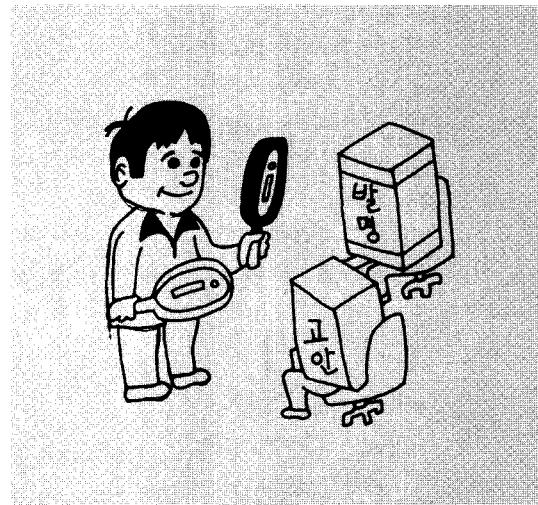
”

분석으로 할 때에도 지식경험을 늘릴 필요가 있다. 만약 원인을 세분화하는데 자신이 없으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면 된다. 체크리스트란 어떤 문제를 생각할 경우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각도를 그 문제에 있어서의 전문가가 미리 생각해서 고안한 형태로 나열한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재점검하며 체킹하는 습관을 들이면, 분석적 사고방식이 자동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기존 아이디어의 개선력 향상

발명가의 또 하나의 특성은 남의 아이디어를 개선하여 더욱 좋은 것으로 만드는 점에 있다.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지만 진실로 새로운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은 틀림없지만 재료는 모두 낡은 것이다. 낡은 재료는 선인들이 남겨두고 간 것이다. 이와 같은 남의 재료를 자신의 뜨거운 용광로에 녹여 새로운 형태의 그릇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모방이 어느 정도 이용된다. 어떤 발명가라도 모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문제는 창출된 아이디어와 그 근원이 되는 것과의 사이에 얼마만큼의 거리가 있는가 하는 정도이다.

세계발명사에 남을 3대발명이란 조셉의 철조망, 마쓰시타의 쌍소켓트, 루드의 코카콜라병이다. 이것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비록 세계 3대발명에 손꼽지는 않지만, 연필과 지우개를 결합하여 지우개가 붙은 연필을 만든 화가 하이만의 발명도 기억할만하다. 또한 一자 드라이버를 十자 드라이버로 개선한 필립의 발명도 세계적인 발명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들은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도 우수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아이디어를 잘 결합시킨 점에서 뛰어난 것이다.

결국 발명가는 아래 5가지 특성에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5가지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문제의 존재에 대한 접근력

▲아이디어의 수가 많음

▲여러가지 각도에서 본 아이디어 창출력

▲분석력과 통합력이 뛰어남

▲남의 아이디어 개선·결합에 뛰어남.

발명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다섯 가지를 연습해서 신장시켜가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